

# 그린바이오텍, 생물농약 1호 개발

특허균주 이용한 완제품 ... 세계 생물농약 시장 연평균 10% 성장

국내 바이오벤처기업이 개발한 미생물 농약이 국가기관 공인 미생물농약 1호로 등록됐다.

그린바이오텍(대표 이재호)은 고추역병용으로 개발된 특허균주(AC 1)를 이용한 <오이 흰가루병 살균제>와 비티(BT) 균주를 이용한 <배추좀나방 살충제> 등 2가지 미생물 농약이 최근 농업과학기술원에서 열린 농약 품목관리 본위원회에서 미생물 농약으로는 국내 처음으로 심의를 통과해 등록됐다고 발표했다.

미생물농약은 미생물을 이용해 작물의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는 제품으로 2000년 미생물 농약에 대한 등록 기준이 고시된 이후 원료 등록은 몇 차례 있었지만 완제품으로 정부 공인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린바이오텍은 2년 동안에 걸쳐 작물에 대한 약효·약해시험, 인축 독성시험, 이화학시험, 환경영향평가시험 등 1, 2차에 걸친 까다롭고 엄격한 등록심사 기준에 모두 통과함으로써 국내 최초로 미생물농약제품을 생산·판매할 수 있게 됐다.

판매를 허가 받은 제품은 전작물에 만연해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는 흰가루병을 치료할 수 있는 살균제와 배추를 비롯한 채소류에 발생해 잎을 갉아 먹음으로서 농가에 큰 피해를 입히는 청벌레류를 완벽히 죽이는 살충제 등 2종이다.

그린바이오텍은 조만간 이들 미생물 농약을 각각 <담시드>와 <솔빛체>라는 이름으로 시판할 예정이다.

또 2003년 안에 흰가루병균과 토마토 잿빛곰팡이병 방제약 등 2가지 미생물 농약 완제품을 추가로 등록하는 한편 토마토 풋마름병(청고병), 잔디 브라운팻취, 고추역병 등에 대한 미생물 농약도 2-3년 안에 등록할 계획이다.

국내 생물농약 시장규모는 살균제부분이 약 200억원, 살충제부분이 약 500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으며, 앞으로 3000억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린바이오텍은 정부의 친환경 농업정책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선호하고 있어 화학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국내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은 매년 25%씩 고속 성장하고 있는 등 미생물농약 시장 전망은 매우 밝은 것으로 내다보았다.

국내에서는 동부한농, LGLS 등 대기업과 휴살림, KIBC, 고려바이오 등 벤처기업에서 미생물농약 등록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이면 그린바이오텍 제품을 포함해 약 10여개 품목이 등록돼 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생물 농약의 연간 국내시장규모는 1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세계 생물농약 시장규모는 2000년 2800억원 규모였으며, 2010년이면 1조원 규모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생물농약은 2001년 말 기준으로 전세계적으로 60여종의 미생물을 이용한 250가지 제품이 개발·유통되고 있으며, 1998년 이후 매년 10% 이상씩 성장해 2000년 전체 농약시장의 0.5%인 1억5000만달러 규모로 성장했다. 2010년에는 전체 농약시장의 6-7%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4/01>